

국별 리포트

# 에티오피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3. 10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3
V. 종합의견	15

## I. 일반개황

면적	1,222천 km <sup>2</sup>	G D P	379억 달러 (2013년)
인구	94백만 명 (2013년)	1 인 당 GDP	316 달러 (2013년)
정치체제	연방제 내각책임제	통화단위	Birr
대외정책	친서방 실리추구	환율(달러당)	20.1 (2013년)

- 아프리카 대륙 동북단에 위치한 에티오피아는 지부티와 소말리아(동), 수단(서), 케냐(남), 에리트리아(북)와 국경을 접하고 한반도의 5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 이집트에 이어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약 9,400만 명)임.
- 1974년 이후 사회주의 군부 정권 하에서 다수의 국경 분쟁과 내전을 겪으며 가뭄 및 사회주의 정책 실패 등으로 인해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전락하였음. 2013년 기준 1인당 GDP는 316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며, 대외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전형적 저개발국임.
- 에티오피아는 내각이 정치 실권과 국군통수권을 지니고 있는 의원내각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1991년에 멩기스투 공산 정권을 무너뜨린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이 20년 이상 장기 집권하고 있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 □ 최근 7~8% 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성장세 둔화

- 전력, 도로, 통신 등 인프라 확충과 이에 따른 투자 증대, 농업 생산성 증가 및 원조국의 공여를 기반으로 최근 5년간 평균 9%에 이르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FDI 유입액(억 달러): 1.1('08) → 2.2('09) → 2.9('10) → 6.3('11) → 9.7('12)

- 2004~08년 중 매년 두 자리 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09~10년 이어진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 및 해외 근로자의 국내 송금액 감소, 2011년 가뭄으로 인한 농업 작황 악화 등의 영향으로 2011년 경제성장률은 7.3%를 기록하였음.

- 2012년에는 지속적인 농산물 상품화 및 가뭄 완화 등에 힘입어 8.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2013년에도 외국인 투자 증가, 전력생산 증가 등으로 7.1%의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나 에티오피아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25년 중산국(1인당 GDP 1,430 달러) 진입을 위해 요구되는 10%대의 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에티오피아의 회계연도 기준은 7.8일 ~ 7.7일로 경제지표 표시연도 해당기간은 전년도 7.8일 ~ 표시연도 7.7일임.

<표 1>

####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sup>e</sup>	2013 <sup>f</sup>
경제성장률	8.8	9.9	7.3	8.5	7.1
재정수지/GDP	-0.9	-1.3	-1.6	-1.2	-3.0
소비자물가상승률	8.5	8.1	33.1	22.9	8.4

자료: IMF, EIU.

## □ 재정수지는 만성적 적자 지속

- 정부 주도의 개발정책 추진으로 재정수지는 만성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IMF는 2013년 7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에티오피아의 공공투자 규모가 GDP의 19%로 세계 3위 수준이며, 동국 정부가 국내 자금조달의 상당 부분을 해외 원조성 자금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에티오피아는 지속적으로 GDP 대비 3~4%대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해 왔으나, 긴축 재정정책 등을 통해 2009년 GDP 대비 0.9%까지 이를 감소시킴. 그러나 이후 경제성장 둔화로 긴축정책을 완화함에 따라 2011년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1.6%로 확대되었음.
- 정부가 인프라 개발, 경기부양 정책 등을 지속 추진함에 따라 2013회계연도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GDP 대비 3.0%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아울러 2014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지출규모가 전년 대비 12% 확대될 예정으로, 재정수지 적자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 □ 높은 수준의 소비자물가상승률

- 2008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제 식품가격 및 유가 상승 등으로 44.4%를 기록하였으나, 2009~10년에는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식료품 및 원유 가격 하락,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및 통화정책 시행 등에 힘입어 8% 대로 하락하였음.
- 2011년에는 가뭄으로 인한 농업 작황 악화, 국제 식품가격 및 유가 상승, 유동성 확대 및 비르(Birr)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한 33%를 기록하였음.
- 국제 식품가격 및 유가 안정, 국내 작황 개선에 힘입어 2012년 물가상승률은 약 23%로 하락하였으며, 2013년에는 8%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과도한 공공부문 지출이 계속되고, 이를 위한 차관 도입 및 중앙은행을 통한 재원조달로 유동성 증가가 계속되면서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정부는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인위적인 외환시장 개입과 긴축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임.

## 2. 경제구조 ·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 농업에 편중된 경제구조

- 농업 부문이 총 GDP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의 85%가 농업에 종사할 정도로 농업에 편중된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어 연간 강수량, 농산물의 국제가격 시세 등 외부적인 요인들이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산업별 GDP 구성(2012년): 농업 46.4%, 서비스업 43%, 제조업 10.7%

#### □ 열악한 농업환경

- 한반도의 5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일부 고산 지대에서만 농산물 재배가 가능하며, 관개시설 부족으로 강수에 의존하고 있어 고질적인 가뭄, 계절에 따라 발생하는 하천 범람 등의 영향으로 농업 작황의 변동성이 높음.

- 총 경작가능면적이 8,500만 ha로 국토의 68%에 달하나, 이 중 1,600만 ha만이 경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초지로 이용되고 있음.

- 농업부문의 성장 가능성은 크나 열악한 농업환경으로 효율성이 높지 않고 작황의 변동성이 심해 식량자급률이 10% 전후에 불과하며, 매년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음. 열악한 농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개시설 확장, 경작기술 개선 등에 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임.

#### □ 숙련된 노동인력 부족

- 총 인구의 약 8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교육 인프라 미비에 따른 숙련된 노동인력 부족으로 인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발달이 부진한 실정임.

- 2010년 기준으로 15세 이상 인구의 문자해독률이 39%, 성인 인구의 평균 학교교육 이수기간이 2.2년에 불과함.

## 나. 성장잠재력

### □ 자원 개발 가능성

- 금, 동, 아연 등 광물자원이 비교적 풍부하고 천연가스전도 2개 지역 (매장량 4조 입방피트)이 발견되었으며, 수단의 유전지대가 에티오피아 까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에티오피아 자원개발에 대한 외국 업체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최대 금 광산인 Lega Dembi 광산의 20년간 채굴권이 사우디 회사에 낙찰되었고 수단과 접경해 있는 오가덴 지역 천연가스 탐사는 말레이시아 Petronas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Calub과 Hillala 가스전에서는 중동계 SIL사가 15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음.
- 석유매장 가능 지역은 오가덴, 아바이강, 메켈레, 감벨라, 남부 지구대의 5개 지역이며, 에티오피아 광산동력부와 네덜란드 석유탐사회사 PEXCO는 소말리 주 오가덴 지역의 석유탐사 및 개발에 대해 합의하였음.

### □ 수력발전 잠재력 보유

- 수력발전을 통해 약 65,000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지형상 그 중 20~25%가 개발 가능하나, 현재 2.5% 미만이 개발된 상황임.
- 정부가 전력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한 결과 Gilgel-Gibe II 발전소와 테케제 댐(Tekeze Dam) 등 10개 지역의 수력발전소에서 총 1,382.6MW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다수의 수력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전력생산능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2010년 1월에 가동을 개시한 Gilgel-Gibe II 발전소는 동국 최대 규모로 420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2009년 말에 전력생산을 개시한 테케제댐은 300MW 규모의 발전 능력을 갖추고 있음.
- 4개의 수력 발전소(2,427MW)가 공사 중에 있고, 6개의 수력 발전소(2,864MW)가 건설 준비 중임.
- 최근 건설된 수력발전소가 사고 및 운영미숙으로 충분한 전력을 생산

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전력공급 전반에 대한 관리능력이 향상되고 건설되고 있는 발전소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경우 주변국가로 전력을 수출하여 대외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다. 정책성과

##### □ 국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인프라 건설 추진

- 정부는 2002년부터 국가발전종합계획을 수립, 국가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010년에 발표한 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GTP: 2011~15)에 따라 도로, 철도, 전력 등 분야별로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GTP는 2015년까지 부문별 수요예측을 통해 달성 목표를 정하고, 정부에 따라 인프라 건설에 매년 약 5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음. World Bank에 따르면 인프라 개발을 위한 에티오피아 예산은 GDP의 42% 수준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최고 수준임.

##### □ 도로건설 지속 추진

- 1997년부터 국가 도로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며, 현재는 Road Sector Development Plan(RSDP) IV를 추진 중임(2010년 7월~2015년 6월).
- RSDP는 간선도로의 개선 및 확대에 중점을 두었으며, RSDP III가 종료된 2010년 6월 총 도로 길이는 48,793km로 RSDP를 시작한 1997년의 22,243km에서 2배 이상 확장됨.
- World Bank에 따르면 에티오피아는 매년 GDP의 3%를 도로 건설에 투입하였으며 최근 20년간 도로 개발에서 269%의 고속 성장을 시현하였음.

##### □ 농업 개발정책 추진

- 농업은 GDP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주요 수출품 역시 커피, 사탕수수 등의 농산품이 차지하고 있는 등 에티오피아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산업으로 정부가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산품 다변화, 상품화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해 농업 개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최대 수출품목인 커피의 수출비중은 90년대 말 전체 수출의 70% 가량

을 차지했으나, 이후 정부의 커피 의존도 축소 및 수출품목 다변화 노력으로 2010년에는 40.5%까지 감소하였음.

- 정부는 '에티오피아 커피·차 위원회'를 농림부 산하에 편입시켜 커피 생산을 관리하고 국가 차원의 마케팅을 실시하는 한편 차와 향신료, 목화 등으로 수출품 다변화를 꾀하고 있음.
- 또 정부는 수출을 목적으로 한 원예산업에 각종 세금 혜택과 토지 장기임차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화훼작물 수출이 2005년 13백만 달러에서 2010년 1억 7천만 달러로 급성장함.

### 3. 대외거래

#### □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적자 지속

- 경상이전수지는 국제원조, 해외 근로자의 송금 유입 확대 등으로 연간 4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상품수지와 경상수지는 식료품, 석유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기계설비 등 소비재와 자본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음.
- 2009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해외거주자의 송금 감소 등으로 7.7%를 기록하였나, 2010년에는 해외송금 유입 및 국제원조가 증가함에 따라 경상이전수지 흑자 폭이 확대되면서 1.6%로 축소됨.
-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로 자본재 수입 수요가 증가하고 경기회복으로 소비재 수입도 증가하면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2011년 2.6%, 2012년 4.8%로 지속 확대되었으며, 2013년에는 더욱 확대돼 7.2%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주변국 앞 전력 수출 증가, 국내 금 생산 증가로 수출이 증가세에 있으나 수입 증가세가 보다 급격하여 경상수지 적자는 확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동국의 경상수지는 경상이전수지 흑자가 수출액보다 약 70% 높은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향후에도 원조 공여 및 해외 근로자의 송금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좌우될 전망이다.

&lt;표 2&gt;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sup>e</sup>	2013 <sup>f</sup>
경 상 수 지	-2,191	-425	-783	-2,031	-2,744
경 상 수 지 / GDP	-7.7	-1.6	-2.6	-4.8	-7.2
상 품 수 지	-5,124	-4,885	-5,300	-6,406	-6,727
수 출	1,695	2,479	3,029	3,009	3,188
수 입	6,819	7,365	8,329	9,414	9,915
외 환 보 유 액	1,471	1,927	2,992	2,062	2,062
총 외 채 잔 액	4,990	5,877	8,223	8,757	11,041
총 외 채 잔 액 / GDP	15.4	20.0	24.6	20.9	23.3
D . S . R .	1.3	1.9	2.7	5.0	5.2

자료: EIU, OECD

## □ 외환보유액은 월평균 수입액 대비 2~3개월 수준

- 외환보유액은 2009년 8월 IMF의 외부충격기금(Exogenous Shocks Facility: ESF) 지원 결정 및 원조 공여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에는 약 30억 달러로 2008년(8.6억 달러) 대비 대폭 증가하였음.

\* 외부충격기금: 외부의 갑작스러운 경제적 충격으로 저소득국의 국제수지 균형에 심각한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국제수지 안정을 위해 IMF가 지원하는 양허적 성격의 기금.

- 국제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아 외환보유액이 가장 주요한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 시중 유동성 흡수 과정에서 외환보유액이 감소함에 따라 2012년 말 외환보유액은 2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동년 10월 말 기준 월평균 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은 1.7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정부가 외환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유하기보다는 경제개발에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은 2~3개월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 총외채잔액 증가 추세

- 2004년에 HIPC Completion Point 달성으로 13억 달러의 외채를 탕감 받은 이후 2007~08년에는 30억 달러 미만의 총외채잔액을 유지하였으나, 2009년에는 비르(Birr)화 가치 하락 및 IMF의 외부충격기금 지원 등의 영향으로 총외채잔액이 50억 달러로 급증하였음.
- 이후 비르화 약세, 국제사회의 지원 및 인프라 개발에 따른 차관 도입이 계속되면서 총외채잔액은 2010년 59억 달러, 2011년 82억 달러로 급증하였으며 2012년에도 88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총외채잔액은 증가 추세임.
  - 국내 자금조달 여건이 취약한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 빈곤감소정책(pro-poor project)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어 외채 규모는 증가세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됨.
- 총외채잔액이 증가하면서 GDP 대비 외채 비중도 증가하여 2010년 이후 20% 대를 기록하고 있음.

### III. 정치·사회 동향

#### 1. 정치 안정

##### □ 인민혁명민주전선의 2010년 총선 압승으로 장기집권 지속

- 군부를 중심으로 3개 단체가 연합하여 결성한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은 1991년에 멩기스투(Mengistu) 공산 정권을 무너뜨린 후 20년 이상 장기집권하고 있음.
- 현재 EPRDF는 TPLF(티그레이 인민해방전선), ANDM(암하라민족민주운동), OPDP(오로모 인민민주조직), SDPDF(남부에티오피아 인민민주전선) 4개 정당으로 구성되어 있음.
- EPRDF는 2005년 총선에서 의석 수가 종전보다 감소하였고 부정선거에

반발한 시위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연간 10%에 가까운 고도 경제 성장 달성에 힘입어 2010년 총선에서는 압승을 거두었음.

- EPRDF는 2005년 총선에서 547석 중 327석을 차지하였으나, 2010년 총선에서는 547석 중 499석을 차지하였음.
- 총선에서 참패한 야당은 사실상 의회 정치에서 배제되어 세력이 매우 미미하며, 집권 여당인 EPRDF가 테러리즘 방지령(Anti-Terrorism Proclamation)을 근거로 언론을 장악하고 야당 및 비정부기구 인사들을 기소하면서 견제세력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임.

#### □ 2012년 9월 하일레마리암 총리 취임 후에도 정치 안정 유지

- 1991년 이후 대통령 및 총리로 국정 권한을 유지하던 멜레스 전 총리가 2012년 8월 병환으로 사망하고 9월 하일레마리암 부총리 겸 외교장관이 총리로 취임하여 국정 운영을 승계하였음.
- 비교적 안정적으로 기존 집권당과 내각이 유지되고, 정치·경제 정책에도 별다른 변화는 없었음.
- 하일레마리암 총리는 2012년 말 내각개편을 통해 EPRDF를 구성하는 4개 정당 모두에 최소한 부총리 자리를 배분하였으며, 이는 세력균형을 위한 조치이자 멜레스 전 총리에 비해 영향력이 부족한 데 따른 조치로도 해석됨. 그러나 야당 세력의 부재로 EPRDF의 집권은 안정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임.

## 2. 사회 및 소요사태

#### □ 열악한 생활환경

- 2013년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인간개발지수'에 따르면 에티오피아는 총 187개국 중 173위로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였음.
- 보건 및 의료 시설 부족으로 인해 평균수명은 2011년 기준 60세에 불과하고 인구의 46%만이 보건 시설의 혜택을 받고 있어 다수의 국민들이 장티푸스, 말라리아, AIDS/HIV 등의 질병에 감염되어 있음.

- 인구의 약 39%가 절대빈곤 상태이고 5세 이하 어린이의 47%가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는 등 만성적인 식량부족 문제를 겪고 있음.

#### □ 종족 간 갈등이 사회불안 요인으로 잠재

- 에티오피아는 오로모족(35%), 암하라족(27%) 등 80여개 이상의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종족 간 갈등이 잠재적인 사회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음.
  - 오로모 해방전선(OLF) 등은 종족에 근거한 지방 분권주의 채택을 주장하며 소수 종족인 티그레이족의 권력 집중에 반발하여 대정부 무력 투쟁을 전개하였음.

#### □ 2013년 들어 정치적, 종교적 반정부 시위 발발

- 2013년 6월 2일 아디스아바바에서 수천 명의 국민들이 수감된 기자들과 정치운동가들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를 펼침. 이는 하일레마리암 총리 취임 이후 첫 반정부 시위로, 이번 시위는 2005년 총선 직후 부정선거 등에 반발하여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이후 처음 발생한 시위임.
- 지난 2년간 정부의 종교적 간섭에 대항해온 에티오피아의 무슬림 단체들은 2013년 8월 2일 아디스아바바의 모스크 및 일부 지방에서 반정부 시위를 열었으며, 진압과정에서 경찰을 포함해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 3. 국제관계

#### □ 에리트리아와의 국경분쟁은 교착상태

- 1993년에 에리트리아가 에티오피아에서 분리 독립한 후 1998년에 국경 분쟁이 전쟁으로 발전하면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2000년 12월에 Algier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서 전쟁은 종결되었음.
  - 종전 후 UN 평화유지군(UN Mission in Ethiopia and Eritrea: UNMEE)이 분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에리트리아 영토 내에 임시안전지대(TSZ)를 설치하고 에티오피아군의 철군 절차를 진행하였음.
- 2000년에 평화협정 체결 당시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에리트리아-에티

오피아 국경위원회(Eritrea-Ethiopia Boundary Commission: EEBC)를 설립하였고 양국은 국경에 관한 EEBC의 판결을 수용하기로 사전 합의하였음. 그러나 2002년에 에티오피아가 자국에 속해 있던 Badme 지역을 에리트리아령으로 확정하는 EEBC의 판결에 불복하면서 국경분쟁이 지속되고 있음.

- 에리트리아 정부가 더 이상 UN 평화유지군의 주둔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UNMEE의 활동을 제약하는 조치를 취하여 양국 간 국경지대에 배치되어 있던 UNMEE의 임무가 2008년 7월에 공식 종료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국 군대의 직접 대치로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 미국 및 유럽과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 1991년 멜레스 제나위 정권 출범 이후 친서방 정책을 채택함에 따라 미국 및 유럽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어 역내 안정을 위한 지리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미국 등과 긴밀한 군사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 ‘아프리카의 뿔’은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지부티가 자리잡고 있는 아프리카 북동부를 가리키는 용어로, 인도양과 홍해를 감시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이 지역의 지형이 코뿔소의 뿔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임.
- 미국은 에티오피아를 아프리카 위기대응군(African Crisis Response Force) 훈련 대상국으로 지정하여 1998년부터 훈련을 시작하였으며, 이라크 전쟁 발발 시에는 에티오피아 정부가 미국에 영공통과 및 기지 사용을 허용하기도 하였음.
- 미국은 군사협력을 바탕으로 에티오피아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큰 규모의 원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 등의 유럽 국가들도 역사적 관계를 바탕으로 대규모 원조를 지원하고 있음.
- EPRDF 정부가 야당 및 언론 인사 탄압을 위해 원조 금액을 유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의 원조 지원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 교역 통로로 지부티 항만 의존

- 내륙국인 에티오피아는 에리트리아와의 전쟁으로 인해 기존에 이용하던 에리트리아의 아사브(Assab) 항으로의 접근이 차단되자 지부티를 통해 수출입 물류를 운송하고 있으며, 현재 양국 간 우호관계 속에 에티오피아 무역의 대부분이 지부티의 항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 기타 주변국과의 관계

- 2006년 12월 에티오피아는 소말리아 과도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말리아 이슬람 군벌(the Union of Islamic Courts : UIC)을 공격하여 UIC 소탕 작전을 수행한 바 있으며, 2009년에 에티오피아 주둔군 철군 이후에도 소말리아 내 정국상황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음.
- 남수단의 독립 이후 수단과 남수단과의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고 있으며, 원유 수입 등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분쟁지역인 Abyei 지역에 4,200명의 UN 평화유지군을 파견하였음.
- 에티오피아 정부가 나일 강 지류에 수력발전을 위한 5,200MW 규모의 댐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나일 강 사용을 둘러싸고 이집트와의 긴장 관계가 악화되고 있음.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 HIPC Initiative 프로그램을 통한 채무탕감

- 2001년에 HIPC Initiative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2004년 4월에 Completion Point에 도달하면서 13억 달러의 채무를 탕감 받았음.

#### □ OECD 회원국 ECA 대한 외채상환 태도 양호

- OECD 회원국 ECA 앞 연체금액은 없음.(2013년 3월 말 기준)
  - 단기: 총지원잔액 2,780만 달러
  - 중장기: 총지원잔액 20.2억 달러

## 2. 국제시장평가

### □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기 관	종 전 등 급	현 행 등 급
OECD	7등급(2012. 10)	7등급(2013. 6)

- 2013년 6월 OECD 국별신용도 평가전문가(CRE) 회의에서는 외채 증가세 및 원조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을 이유로 에티오피아의 국가 신용등급을 종전과 같이 최하 등급인 7등급으로 유지하였음.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63. 12. 23 (북한과는 1975. 6. 5 수교)
- 주요협정 : 경제기술협력협정(1992), 문화협정(1998), 무역협정(2003),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2011), 무상원조기본협정(2011)
- 2012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는 13,257만 달러이며, 2013년 8월 기준 교역규모는 7,546만 달러임.

<표 3> 한 · 에티오피아 교역규모 단위: 천 달러

	2010	2011	2012	주요품목
수 출	50,499	106,904	107,911	건설광산기계, 자동차, 농약및의약품
수 입	11,722	19,730	24,662	기호식품, 곡실류, 가죽
합 계	62,221	126,634	132,573	

\* 자료: 무역협회

- 주요 수출품은 건설광산기계, 자동차, 농약 및 의약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기호식품, 곡실류 등임.
- 에티오피아의 6.25 전쟁 참전 이후 우호관계 유지
  - 에티오피아는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의 일원으로 1개 대대병력, 총 6,037명을 파병한 바 있으며, 양국은 1963년 수교를 거쳐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멩기스투 공산정권 하에서도 기존의 우호, 협력관계를 감안하여 우리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으며, 1991년에 공산 정권이 축출된 이후에는 양국 관계가 정상을 회복하였음.
- 2011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이 에티오피아를 국빈 방문하면서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되었음. 동 방문에서 양국 정상은 파트너쉽 구축을 통해 동반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로 하였으며, 에티오피아 경제 발전을 위해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기로 함.
-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를 경제개발을 위한 모델로 인식하고, 우리나라로부터 개발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한 인적자원 훈련과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어 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해외직접투자(2013년 6월 말 누계, 총투자 기준): 5건, 212만 달러

## V. 종합의견

- 에티오피아 정부는 경제 발전을 위해 분야별 인프라 건설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른 내외국인 투자 증가, 인프라 확충, 농업 생산량 증대 등에 힘입어 2004년 이후 매년 두 자리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09년 이후 7~8% 대로 경제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었으며, 향후에도 7%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인프라 건설 및 빈곤감소정책으로 재정수지가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과도한 지출과 이를 위한 차관도입, 중앙은행을 통한 재원조달에 따른 유동성 증가 등이 계속해서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 수입의존도가 높아 물가변동성이 크고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원조국의 공여 및 해외근로자 송금이 경상수지의 큰 부분을 차지함.
- 2010년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인민혁명민주전선이 압승을 거두었으며 4선 임기에 취임한 멜레스 총리의 갑작스런 사망에도 불구하고 2012년 9월 하일레마리암 총리가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승계하였음. 총선에서 참패한 야당 세력이 매우 미미하고 여당이 야당 및 비정부기구 인사들을 억압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정치적 불안이 초래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됨.

- 총외채잔액이 증가세에 있고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이 2개월 내외로 낮은 수준이나, 정부의 야권 탄압 등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원조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외채 상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조사역 이주은(☎02-3779-5727)

E-mail : june@koreaexim.go.kr